

영혼들에게 단 한 방울이라도 줄 수 있도록, 너희 마음으로 봉사하여라.

오랜 기간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 머물러라,

그러면 너희들이 염주의 구슬이 될 것이다.

오늘, 사랑의 대양인 아버지가 그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만나려고 왔다. 자녀들은 "나의 바바, 오세요!"라면서 기억했고, 그러면 아버지는 말한다: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각 자녀의 사랑은 아버지를 그들에게 속하게 만들만큼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아버지는 모든 자녀들에게 "나의 자녀야"라고 말하고, 그분 안에 각 자녀를 합쳤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 자녀들은 "나의 바바"라고 말했고, "나의"라는 말은 아주 많은 사랑으로 가득했으며, 아버지도 역시 "나의 자녀들!"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너희들이 예전의 너희에서 완전히 다르게 변할 정도인, 그런 사랑이다. 각 자녀의 이마에서 사랑의 파도가 흘러나오고 있고, 밥다다는 이것을 보며 기뻐하신다. 사랑은 누군가의 마음을 너희에게 속하게 만드는 수단이다. 각 자녀에게서 사랑의 물결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며 밥다다는 아주 기뻐다.

밥다다가 지금 너희 모두와 함께 5분간의 훈련을 진행할 것인데, 너희의 신봉자들 모두와, 너희를 기억하며 "오 우리의 조상들이시여, 우리에게 잠시라도 평화를 주소서, 우리에게 단 한 방울이라도 행복을 주소서"라고 소리쳐 부르는 불행하고 평화롭지 못한 영혼들을 구해 주어라. 너희 마음의 힘으로,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도, 저 영혼들이 나타나게 만들어라. 그들이 "저희를 구해 주세요! 저희를 구해 주세요!"라고 소리쳐 부르는 소리를 너희는 들을 수 있느냐? 너희의 마음의 힘으로 행복과 평화의 광선이 그런 영혼들에게 가 닿게 해라. 거듭해서 이런 방식으로 마음을 통해 계속 봉사해라, 왜냐하면 아버지와 함께 너희 자녀들도 역시 세계의 봉사자이기 때문이다. 하루종일 너희가 말을 통해서 봉사하는 도구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수시로 마음을 통해 봉사하는 연습을 계속해라.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도 유익한데, 봉사하면서 마음을 끊임없이 바쁘게 유지하는 경우엔, 마야가 중간 중간에 만드는 쓸데없고 낭비적인 생각에서 너희가 구제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열심히 애쓸 필요는 없을 것이다. 만일 밥다다가 너희에게, 지금 어떠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 너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가끔씩은.... 따라서, 너희들은 항상 노력하고 있지는 않다. 밥다다는 이제 너희 자녀들 모두의 기록에서, "가끔"이라는 말이 끝나는 것을 보길 원한다. "가끔"이라는 말이 끝나는 것이 가능하냐? 때가 되면 준비되겠느냐? "그렇게 되고 있다"나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대신에, 항상 준비된 상태일 수 있느냐? 왜냐? 너희가 마야의 정복자, 마음의 정복자, 그리고 세계의 정복자가 되는 산스카라를 가지는 훈련을 오랫동안 하면, 마지막 순간에 오랜 기간에 걸친 이 훈련이 너희를 승리하게 만들고, 염주의 특별한 구슬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우등으로 합격할 것이다. 그냥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등으로 합격해라. 그러니 말해 봐라! 너희들은 이런 용기가 있느냐? 너희들은 우등으로 합격하기를 원한다, 그렇지? 그들이 동시대부터 지금까지 숭배자들이 되는 이들, 즉 염주의 구슬이 되는 이들이다. 너희들은 자신을 염주의 구슬로 만들겠다는 순수한 생각을 한다, 그렇지 않느냐?

매일 암릿 벨라에서, 밥다다는 그의 염주의 구슬들을 보고, 그들과 함께 특별한 축하를 한다. 너희 모두는 스스로를 염주의 구슬로 여기느냐? 또한 16,000개의 또 다른 염주도 있지만, 그것은 두 번째 염주다. 찬양되고 숭배받을 가치가 있는 특별한 염주는 첫 번째 염주이다. 오늘, 밥다다는 그 구슬들을 보고 있었는데, 그들이 브라마 바바와 더불어 왕국의 권리를 특별히 차지하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오늘, 아버지 브라마는 지금 현재 집중적인 노력가인 그의 자녀들을 보고 있었다. 물론 미래 왕국의 옥좌에는 단 두 명만 앉겠지만, 첫 번째 염주는 왕국에서 동반자들로 된 염주다. 너희들은 스스로를 점검했느냐? 너희는 밥다다와 함께 집으로 돌아갈 텐데, 왜냐하면 지금은 너희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너희들은 돌아가야 하는데, 너희 혼자가 아니라 밥다다와 함께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 누가 아버지에게 가까운 구슬이 되어서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갈 것이냐? 오랜 기간 동안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인 이들일 것이다. 단지 가끔씩만 뭔가를 하는, 그냥 노력가가 아니다. 오직 오랜 기간 아버지와 대등했던 이들만이 왕국에 대한 권리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느냐? 노력가들의 줄에 서 있다고 느끼는 자들은 손을 들어라. 집중적인 노력가인 자들, 손을 높이 들어라! 너희들은 손을 아주 낮게 들고 있구나. 앗차, 너희들 중 많은 이들이 손을 들고 있다. 다시 한번 높이 손을 들어라! 그렇게(낮게) 들지 말아라. 앗차.

밥다다는 매일 자녀들의 차트를 본다. 대부분은 집중적인 노력가들이지만, 그들 역시 거기에 "때때로"라는 말을 덧붙인다. 그러나,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의를 기울여라! 너희의 미묘한 생각에서조차도 격동이 없어야 된다. 너희들은 반드시 오랜 기간 동안 흔들림 없고 부동하며, 순수한 생각만 해야 한다. 일부 자녀들은 아주 다정한 마음과 마음의 대화를 나눈다. 그들은 말한다. “바바, 저희들은 틀림없이 준비가 될 것인데, 왜냐하면 시간이 가까워지면 격동의 상황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무관심해질 테니까요.” 그러나 누가 너희의 선생이냐? 시간이냐, 아니면 아버지냐? 시간은 너희의 피조물이다. 아버지가 지금 너희에게, 오랜 기간에 걸친 집중적인 노력이 마지막에 너희를 우등으로 합격하게 만들 것이라는 신호를 주고 있다. 모두가 합격하겠지만, 우등으로 합격하려면 오랜 기간 동안 집중적인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날짜를 적어둬라. 아직까지도 "때때로"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들은 전진하면서 계속 이런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의 사랑은 항상 거기에 있다. 그는 심지어 맨 마지막 구슬조차도 사랑한다. 왜냐? 그들이 진심으로 "나의 바바"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위대한 영혼들조차도 "나의 바바"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최소한 "나의 바바"를 믿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들도 사랑한다. 아버지는 끊임없이 자녀들을 사랑한다 - 맨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마지막 자녀까지도 사랑한다. 너희를 바바에게 속하게 만든 것은 사랑이다. 밥다다가 이미 말했듯이, 너희들 중 대다수가 밥다다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지속될 것이지만, 사랑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힘도 필요하다. 또한 너희는 집중적인 노력도 해야 한다.

밥다다는 너희 자녀들을 믿고 있고, 이것이 그가 지금부터 자녀들에게 수백만 배의 축하를 하는 이유이다. “와 자녀들! 와!” 너희들은 용기가 있다. 용기가 있으면, 너희는 틀림없이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제 한 가지를 하여라. 너희들의 마음을 바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앞서서 단 1초 만에 마침표를 찍으라고 말했듯이, 너희는 한 점이며, 마침표를 찍어야 하고, 모든 이를 한 점으로 보아야 한다. 모든 이를 한 점으로 보면, 다른 어떤 생각도 나지 않을 것이다. 마음으로 봉사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라. 많은 불행한 영혼들이 소리쳐 부르고 있으니, 그들에게 빛의 광선을 보내주는 추가적인 봉사에 너희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 마음을 통한 봉사는 아주 고귀한 봉사이다. 그것은 불행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또한 너희에게도 혜택을 준다; 2중의 혜택이 있다. 너희는 말을 통해서 봉사하며, 그 봉사가 늘어나고 있다; 너희는 진심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센터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너희들 대다수는 말을 통한 봉사를 잘하고 있는데,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렇다. 마찬가지로, 이제 특별한 영혼들에게 한 방울을 주는 봉사를 계속해라. 마음을 자유롭게 놔두지 말아라. 한 가지 봉사 또는 다른 봉사로 너희의 마음을 바쁘게 유지해라: 마음을 통해서 힘을 주는 봉사, 말을 통한 봉사, 행동 속의 미덕들로 하는 봉사, 너희 친척이나 접촉하는 이들에게 행복을 주는 봉사 등으로. 이런 다양한 종류의 봉사로 너희 마음을 바쁘게 유지해라, 왜냐하면 누가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영혼들이냐? 바로 너희들이다, 그렇지?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보물들을 받았느냐? 그러니 모든 보물을 가지고서 봉사해라. 너희들이 봉사에서 이 보물들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그 보물들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너희 자신에게 봉사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루를 지내는 동안 너희 마음을 통해서 불행한 영혼들과 너희 신봉자들에게 광선을 보내주는 봉사를 하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라. 저들은 아주 많이 소리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들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대부분 각 가정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슬픔이 있다. 저 불행한 사람들에게 누가 행복을 주겠느냐? 말해 봐라! 누가 주겠느냐? 너희들이다,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 하루를 지내는 동안 마음을 통한 너희의 봉사를 체크해라. 그것에 시간을 얼마나 쓰고 있느냐? 너희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을 통한 봉사에 얼마나 시간을 쓰느냐? 너희는 자비롭다,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 불행한 이들에게 자비를 가져라. "오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분이시여, 불행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노래도 있다, 그렇지 않느냐? 밥다다는 이런 말을 아주 많이 들어야 한다. 너희는 그렇게 많이 들을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말을 들어라. 저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느냐? 그들은 너희 형제 자매들이다. 그러니 너희 자신에게 유익하도록 마음을 바쁘게 유지하고, 또한 불행한 이들의 슬픔을 없애주어라. 그들은 소리쳐 부르고 있고, 가슴으로 울부짖고 있다. 밥다다는 이것을 듣고, 너희 자녀들을 기억한다. 오,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오랫동안 잃었다가 이제 다시 찾은 자녀들아, 이제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라. 브라민들에게도 협조해라. 어떤 이가 어떤 종류의 산스카라를 갖고 있든, 무엇이 너희의 임무이냐? 그 산스카라와 부딪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영혼을 산스카라의 충돌에서 구해주는 것이냐? "슬픔의 제거자이며 행복의 수여자"라는 칭호는 너희의 칭호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들은 아버지의 동반자다, 그렇지? 아버지의 동반자들아, 이제까지 어떤 생각들을 해왔느냐? 너희는 이 세상의 슬픔과 평화롭지 못함을 바꿔서, 행복과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는 이 일을 해야 한다. 손을 들어라! 너희들은 이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저 지켜보기만 할 테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비록 그것이 브라민 영혼이라 해도, 그냥 계속 지켜만 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의 말과 마음을 통해서 그들 역시 변화시켜라. 너희가 그것을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어선 안 된다. 밥다다는 계속 들었고, 그 사안이 밥다다에게 도달했다. 너희가 이 상황을 그에게 이미 주었으니, 이제 너희들은 아버지의 지시만 따르면 된다, 왜냐하면 밥다다에게 책임이 있고, 특별히 사랑스러운 동반자 자녀들은 그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의 마음 속에 낭비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지 말고, 불행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영혼들에게, 그들이 브라민 영혼이든 다른 누구이든, 끊임없이 협조해 주어라. 협조해서 도와라. 앓차.

여기에 처음 온 새로운 자녀들아, 너희들은 남은 시간 동안 집중적인 노력을 해서, 10분 걸릴 일을 1초 만에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너희들의 시간을 아주 약간이라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너희들은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너희가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앞서 갈 수 있다. 모든 브라민들과 아버지를 대신하여 좋은 염원과 순수한 느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앓차.

마두반에서 온 이들은 모두 일어서라! 마두반 거주자들이 아니었으면 누가 너희에게 이런 환대를 베풀겠느냐? 너희들은 편하게 도착해서, 먹고 마시고, 원기를 회복한다. 그러니 마두반 거주자들에게 박수 쳐주어라! 밥다다는 공간이 부족해서 마두반 거주자들은 멀리 앉아서 멀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이것 역시 마두반에서 온 이들의 봉사다. 이것도 봉사다. 다른 이들에게 행복을 주므로 너희들은 행복의 공여자가 된다. 행복을 주고 행복을 받는 것이 마두반에서 온 이들의 임무다. 너희들의 경험과 여기에 온 이들 모두의 경험을 서로 나누고, 너희들은 그 경험에서도 역시 유익을 받는다. 많은 유익이 있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너희들이 많이 나누지는 못한다. 마두반 거주자들의 호칭이 무엇이냐? 행복을 주고 행복을 받는 이들이다. 아버지를 따르는 이들이 행복의 공여자의 자녀들이다. 앓차.

이번에 온 이들은 멀리를 규칙적으로 듣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멀리를 듣지 않는 이가 있느냐? 손을 들어라! 아무도 없다. 앓차. 멀리를 듣지 않거나, 읽지 않는 이들은 일어서라! 몇 명 있구나. 상관없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시간이 남아 있을 때까지.... 이것은 아버지의 고귀한 말씀이다. 밥다다는 지고의 지역에서 오고, 브라마 바바는 서틀 리전에서 와서, 그들이 고귀한 말씀을 한다. 그러니 단 하루도 멀리를 놓치지 말아라. 만일 너희들이 멀리를 빠뜨린다면, 너희는 밥다다의 가슴 위 옥좌에서 내려갈 것이다. 멀리를 빠뜨리는 이들은 세 옥좌의 주인이 아니며,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그저 두 옥좌의 주인이 될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멀리, 멀리, 멀리다. 왜냐하면 멀리에는 매일을 위한 지시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네 과목 모두를 위한 지시가 있어서, 너희들은 매일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멀리를 놓치는 이들은 멀리를 들을 수 있도록 스스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구원을 위한 방법을 찾아라. 오늘날 과학의 발명품들이 너희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과학은 쉬브 바바가 브라마 바바 몸 안에 들어가기 100년쯤 전에 발명되었다. 그것이 너희에게 유용할 것이니, 너희는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 유익을 누려라! 앗차. 바바의 앞에 앉아서, 또는 다른 어딘가에서 멀리를 듣고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깊은 사랑을 가지고 기억과 사랑, 나마스테 인사를 보낸다.

UP, 베나레스가 봉사할 차례입니다: 아버지 브라마와 자가담바, 세계의 어머니는 UP를 많이 사랑해 왔다. 아버지 브라마는 봄베이만큼이나 여러 번 UP에 갔었다. 아버지 브라마가 발자취를 남긴 장소는 아주 행운이 있다! 러크нау, 칸푸르 두 곳 모두 이 행운을 그들의 권리로 누려 왔다. 봄베이도 역시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는 UP의 차례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뿌린 가르침의 물방울들이 UP에 직접 뿌려졌다. 미래를 위해 지금 UP가 무엇을 해야겠느냐? 너희는 델라에서 말을 통해 봉사한다, 그러나 현재의 때에 따라서 밥다다는 상속자와 유명한 마이크들을 데려오라고 지금까지 모두에게 말해왔다. "유명한"이란, 그들이 말을 하면, 그것을 들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이들을 의미한다. 그런 마이크들을 준비해라. 각 센터마다 그러한 상속자들의 그룹이 있어야 된다. 유피에 몇 개의 센터가 있느냐? 많다. 그러니 너희들이 상속자들을 그 수만큼 데려 와야 한다. 센터가 몇인지 세어보고, 상속자를 몇 명 창조했는지 세어봐라. 그러니 있어야 할 수만큼 상속자가 왔느냐, 아니면 앞으로 더 와야 되느냐? 너희들이 앞으로 그들을 창조해내야 된다면,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 가능한 대로 빨리 상속자와 마이크들을 창조해서 그들의 소리를 듣고 많은 영혼들에게 행운의 선이 열리게 해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봉사를 많이 해왔기 때문이다. 오래된 이들은 이제껏 봉사를 많이 했다. 이제 다른 이들을 통해서 봉사가 되게 해라. 그것을 할 이들을 준비해라. 너희들은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선생들아, 손을 들어라! 앗차. 많은 선생들이 있다. 그러니 그 수만큼 준비해라. 크든 작든 상관없이, 센터 목록에 등록되어 있는 각 센터는 반드시 증명해야 하는데, 시간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언제든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밥다다가 각 지구에게, 심지어 오지 않은 이들에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다. 밥다다는 모든 지구에게 말하고 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 클래스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숫자가 계속 늘고 있지만, 이제는 도구가 될 이들을 준비해라. 그들을 창조하기 위해, 밥다다는 모든 지구에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는 것을 보았다. 유피에서 온 이들은 신봉자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 자기 스스로 신봉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그들은 신봉자들이다. 그들이 행한 신봉의 결실을 받을 수 있게 해줘라. 그들은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것은 좋다. 밥다다는 각 지구가 노력에서 전진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래도 아직도 더 나아가갈 여지가 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너희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그것을 하고 있다. 너희는 그것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속도를 조금 더 높여라. 너희들은 좋고, 봉사를 잘 하고 있다. 다디들 모두도

너희 모두를 축하하고 있다. 판다바들도 역시 아주 많이 왔다. 판다바들도 이에 못지 않다. 오직 판다바들만이 할 수 있는 봉사가 여러 종류 있다. 밥다다와 모든 마두반 거주자들이 모든 판다바들을 축하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앗차.

축복: 너희들의 지각의 발을 변함없이 행동수칙의 선 안쪽에 놓아둠으로써, 강력해지고, 모든 성취로 가득해져라.

그들의 지각의 발이 행동수칙의 선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자녀들은 행운 있고 사랑스럽게 된다. 그들은 어떤 장애, 폭풍, 괴로움, 불행도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 만일 이런 것들 중 어떤 것이 너희에게 온다면, 그럴 경우에는 너희들이 이미 지각의 발을 행동수칙의 선 밖에 내디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선 바깥을 발로 내디뎠다는 것은 거지가 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절대로 구걸하지 말아라; 강력해져서, 모든 성취로 가득하게 되어라.

슬로건: 변함없이 초연하며,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들은 언제나 안전하다.

*** 옴 산티 **OMSHANTI** ***

아비약트 신호: 불순함의 씨앗을 끝내고, 완전히 깨끗(순수)해져라: 결단력은 성공의 열쇠이며, 성공은 너희 자녀들의 타고난 권리다. 그러므로 결단력을 사용하고, “그렇게 될 거야, 내가 그걸 할거야...”라고 생각함으로써 부주의해지는 일은 없게 해라. 그런 식으로는 생각하지 말아라. 낭비적인 모든 생각을 끝내려는 결단력을 가지고, 승리해라.